

중인 윤후정박사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 축하

1997-8-28

오늘 우리는 여기에/이화의 법학과 교수로서 42년간 봉직한/윤후정 박사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윤박사님을 <큰 스승님>으로 존경하는 후학들이/헌법학자로서의 그의 학덕과/여성인간화를 위한 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로 윤박사님의 뜻과 실현의지를 담아낸/알곡과도 같은 세 권의 책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치루는 행사여서 더욱 의미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인들뿐만이 아닌/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윤박사님의 인간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일관한/당당하고도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우리가 다시한번 동시대의 사람으로서/공지를 확인하는 행사에서/축하의 말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처음에는 몇가지 머리속에 스치는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의 후학들이/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윤박사님에 대한
각별한 정과/존경심을 짐작한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윤박사님과 저는/이화에서는 학과는 달랐지만 동기생으로서/대학 YWCA
운동과 학생회의 일을 함께 하고/이화 밖에서는 <75년도 유엔 여성의 해>
맞이 준비를 함께하면서/애 재 하는 서로 격이 없이 말을 놓을 수 있었던
때를/윤박사님이 총장이 되어 중단된 이래 지금까지/고향처럼 그리워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때가 다시 올 것 같은 생각에서/개인적
으로는 흐뭇함을 느낍니다.

지배집

이화에서는 교수로서 정년퇴임하면 강단에서의 책임은 벗는 것으로 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윤박사님이 사회에서의 여성인간화운동을 통한 인간
동체운동에의 복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화 밖으로의 그의 발걸음을 환
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사회운동 복귀로 인해 그가 평생
표로 하고 있는 여성의 인간화완성을 사회각계에 진출하고 있는 그가 키
낸 쟁쟁한 여성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힘을 묶어 그 과업에 종지부를 찍기
기대하며 오늘이 그 첫 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말없이 추진하는 개척자〉로 불리우는 윤후정 박사님의 여성운동의 앞으로의 과제를 그의 말에서 찾아보면:

윤박사님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자질은 유년시절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때부터 어렴풋이 싹트인 성차별의 문제의식이 50년대의 법학공부를 통해 법제도상의 성차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기가 37년간의 여성선각자들의 지속적인 각고 끝에 90년도 정기국회에서 성취해낸 가족법 개정의 단초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윤박사님은 단순한 지위향상노력에 머물러 있던 60년대 우리나라 여성운동을 답답하게 여기며/그로부터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여성문제를 구조적,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이론을 정리·정립하여 여성계에 전달하고/70년대의 여성운동이/여성의 인간화와 여성해방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전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5년 유엔 여성의 해를 기해/윤박사님의 새로운 차원의 여성운동론이/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은/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여성들의 기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 사람에 대해 갖는 다윗승백기 귀여운 희로정인 얼마나 많았는지, 희로정인 정도에 (이제껏 못알아듣고 있던) 우리 남자를 모두 감싸 주게 해서, 해방 운동의 열의가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라는 책의 48~62쪽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여성운동의 이념과 방향>이라는/74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의 강연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여성운동가들에게 가슴뭉클함이 남아있을 정도로 감명을 주었습니다.

남녀의 우열,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임을 설파하면서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이념은 여성의 인간화와 남녀 인간전체의 해방으로 복지적 공동체사회 형성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운동은 단순한 여성지위향상운동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약간의 권리개선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그 내용이 되어서 여성인간화운동이 전체인간해방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운동의 시야를 크게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이화의 교육행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여성학의 정립과 새로운 여성상 교육에 투신하고 총장직무의 수행을 통해 이화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후학들의 지도력 신장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여성의 완전한 인간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멀다고 제삼권의 머릿글에서 술회하고 있습니다.

신념에 투철한 <여성해방운동가>인 윤후정박사님! 앞으로의 윤박사님의 남은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먼 길을 보다 가까운 거리로 단축하는 과제 말입니다.

윤박사님 나름대로의 과제를 풀기 위한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 우선과제는 이화에서 배출한 수많은 기라성같은 지도력이 각 분야 도처에서

아직 여러 형태로 가로놓여있는 장벽으로 제대로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화의 내부업무에서 자유로워진 윤박사님의 지도력의 나래를 이제는 이화 외부에서 한껏 펴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전에 닥쳐온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운동의 태동의 기수역할을 또한번 발휘하여야 하는 자리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전승을 계승하여

사람들은 퇴임한 후 더욱 큰 일을 의무에서가 아닌 자유의사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수퇴임과 출판기념을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축사를 마감합니다.

STUDY CARDS

MADE IN KOREA

6 mm line
Mookeuk note is manufacturing
these note books with best
quality paper and printing

MK-008



862-0001